



엄격과 자애

루트교육연구소 www.keytostudy.com

활 기차고 붙임성이 있는 아이, 자신감이 있고 자제력이 있는 아이,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흥미거리를 가진 아이.....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일 것이다. 바움린드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이런 자녀를 길러 내는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진다고 한다.

아이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정해 놓은 규칙은 확실히 지키게 한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물러나지 않는다.

아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

아이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준다.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아이가 나이에 맞는 성숙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부모들은 한마디로 엄격함과 자애로움을 균형있게 지닌 부모들이다. 이들은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되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아이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표현하지만 아이 행동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는 엄격하게 꾸짖어 벌할 줄 안다. 만약 부모가 자애로움이 없이 지나치게 엄격하기만 했을 때 아이는 참을성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반대로 자애로움이 지나쳐 무조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키웠을 때 아이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자랐다. 바움린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부모는 우리네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스스로 어떤 부모인지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011111**



■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부모의 태도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의 표정에서,

또는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한 두마디의 말에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 이해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이해받는 기쁨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럴 때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능력에 맞는 기대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재주가 있든 없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는 것이다.

■ 부모의 사랑은 상벌이 아니다.

요즈음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사랑을 자녀의 좋은 행동에 대한 상쯤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가 착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건부적인 사랑분배는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자신의 세계를 불신하도록 만든다.

■ 나쁜 짓을 할 때는 야단을 쳐서라고 고쳐줘야 한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 잘못을 가려주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잘하는 행동은 더욱 잘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용의 태도이다.

■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잘하는 것은 뇌두고 못하는 것만 골라서 꾸중을 하게 되면 잘하던 것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잘하는 것은 칭찬하면서 못하는 것을 격려해 주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된다.

■ 하찮은 일은 했더라도 반드시 칭찬을 해준다.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시하고 별 것 아닌것도 아이는 그것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데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자녀 스스로 한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와 존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아이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칭찬과 꾸중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너의 행동이 어떠한지 때문에 착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모호한 칭찬을 함으로써 허영심을 심어주거나 부정확한 자아개념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 먹는 아이에게 “넌 분명히 튼튼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보다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야”라는 말처럼 구체적인 칭찬이 보다 효과적이다.

■ 필요이상의 칭찬은 좋지 않다.

필요이상으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확실치 않은 자아개념이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허물어지게 되면 이를 극복하는 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칭찬을 할 때는 반드시 때와 장소, 상황에 알맞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 존경받는 어른만이 꾸중할 자격이 있다.

아이가 존경하고 믿는 사람, 아이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꾸중할 때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항상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